



内閣感染症
危機管理統括庁

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정부 행동 계획 개요

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정부 행동 계획 개요 ①

-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정부 행동 계획은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에 기반하여, 신형 인플루엔자 등에 의한 감염증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, 국민 생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상시의 준비와 감염증 발생 시의 대책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2013년에 제정(2017년에 일부 개정)
-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행동 계획의 첫 근본적 개정
- '내각 감염증 위기 관리 통괄청'과 '국립 건강 위기 관리 연구소(JIHS)'의 설립,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종합 조정 및 지시 권한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(관리체계) 강화, 평상시 의료기관과의 협정 체결을 통한 준비 체계 확립 등의 제도 개정을 반영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신형 인플루엔자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증에 대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
- 다음의 감염증 위기에서는 본 정부 행동 계획을 참고하여, 감염증의 특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적 대처 방침을 신속히 작성하여 대응

1. 평상시 준비의 충실했화

- "훈련에서 못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도 할 수 없다."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은 평상시부터 실효성 있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끊임없는 점검 및 개선
- 감염증법 등의 계획에 따라, 자치단체는 관계 기관과 협정을 체결. 감염증 발생 시 의료 및 검사 체제의 신속한 구축를 위한 체제를 확보
-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, JIHS와 지방 위생 연구소 사이의 연계 체제와 네트워크를 구축

2. 대책 항목의 확충과 횡단적 관점 설정

- 전체를 3단계(준비기, 초기 대응기, 대응기)로 나누어 기재
- 6개 항목이었던 대책 항목을 13개 항목으로 확충. 내용을 세밀화
- 특히, 검역대책 또는 검사, 백신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부 행동 계획에서 기술을 충실히 하는 것과 함께 편견 및 차별 등의 방지와 허위와 오보 정보 대책을 포함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올바른 자세 등을 정리
- 다섯 가지 횡단적 관점※을 설정하여 각 대책 항목의 대응을 강화
※인재 육성,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 간의 연계, DX 추진, 연구 개발 지원, 국제 연계

3. 다양한 감염증에 대한 대응 대책 정리와 유연하고 기동적인 대책 전환

- 신형 인플루엔자와 신종 코로나 이외의 호흡기 감염증 또한 염두에 두고, 중장기적으로 여러 번의 피크가 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책을 정리하였다.
 - 상황의 변화※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균형을 고려하여, 유연하면서도 기동적으로 대책을 전환
- ※검사나 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, 백신·치료약의 보급, 사회경제의 상황 등

4. DX(디지털 전환)의 추진

- 예방 접종 업무의 디지털화·표준화 및 전자 의료 기록 정보의 표준화 등 의료 DX를 추진하며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 간의 정보 수집·공유·분석·활용의 기반을 정비
- 장래적으로는 전자 의료 기록과 발생 보고의 연계 및 임상 정보를 연구 개발에 활용 등

5.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

- 정부 행동 계획에 따른 노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실시 상황을 매년 팔로우업※
- ※특히, 검사·의료 제공 체제의 정비, 개인 보호 장비 등의 비축 상황 등을 시각화
- 감염증법 등의 계획 등을 재검토하며 상황이나 이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대략 6년마다 개정

각론 13개 항목의 개요

① 실시 체제

- 국가, 지방 공공단체, JIHS, 연구 기관, 의료 기관 등의 다양한 주체가 상호 연계하며 국제적으로도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체제를 확보
- 평상시에는 인재 확보·육성 및 실질적인 훈련에 의한 대응력을 강화, 유사시에는 정부 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기본적 대처 방침에 따라 정확한 정책 판단, 실행

② 정보 수집·분석 ③ 서베일런스(감시)

- 서베일런스 및 정보 수집·분석 체제 구축과 DX추진을 통한 평상시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서베일런스,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
- 감염증 대책 판단 시, 감염증 및 의료 상황의 포괄적인 리스크 평가,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

④ 정보 제공과 공유, 리스크 커뮤니케이션

- 감염증 위기에서는 정보의 혼란, 편견과 차별 등의 발생, 가짜나 오보 정보의 유포의 우려
- 감염증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행하고, 리스크 정보와 그 시각의 공유 등을 행하여 국민이 적절히 판단하고 행동
- 평상시부터, 감염증 등에 관한 보급 계발, 리스크 체제의 정비, 정보 제공, 공유의 방법의 정리 등

⑤ 검역대책

- 국내로의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병원체의 침입이나 감염 확대 속도를 가능한 한 늦추기 위해, 검역 조치의 강화나 입국 제한 등의 국경 대책을 종합적으로 실시
- 병원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, 대책의 유효성, 실행 가능성, 국민 생활 및 사회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실시해야 할 검역대책을 선택하여 결정
- 상황의 진전에 따라, 대책의 축소 및 중지 등의 재검토를 실시

⑥ 만연 방지

- 의료 제공 체제를 확충해 나아가면서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는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감염 확산 속도나 피크를 억제
- 의료 압박 시에는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, 긴급 사태 선언을 포함한 필요조치를 적시에 적절히 실시
- 백신과 치료약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책의 축소와 중지를 기동적으로 실시

⑦ 백신

- '백신 개발 및 생산 체제 강화 전략'에 따라, 중점 감염증을 대상으로 한 백신의 연구 개발을 평상시부터 추진하고, 연구 개발의 기반을 강화
- 유사시에 국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실시
- 예방 접종 업무의 디지털화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추진

각론 13개 항목의 개요

⑧ 의료

- 의료의 제공은 건강 피해와 사회,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직결
- 예방 계획 및 의료 계획에 따라 평상시에 도도부현과 의료 기관 간에 의료 조치 협정을 체결하여 감염증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
- 유사시에는 통상 의료와의 양립을 염두에 두고, 감염증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며 병원성 또는 감염성 등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고 기동적으로 대응

⑨ 치료약과 치료법

- 평상시에 중점 감염증을 대상으로 한 치료약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, 연구 개발의 기반을 강화
- 유사시 치료약 확보와 치료법 확립을 위해 연구 개발, 임상 시험, 후생노동성 승인, 제조, 유통, 투여, 예후 정보 수집 및 대응까지를 포함한 일관된 대책과 지원을 실시

⑩ 검사

- 검사가 필요한 자에게 적시에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조기 발견, 유행 상황의 정확한 파악 등을 통해 적절한 의료 제공 및 대책의 정확한 실행과 기동적 전환을 실시
- 평상시에는 장비나 자재 확보, 발생 직후에는 조기 검사 시행, 유행 초기 이후에는 병원체나 검사 특성을 고려한 검사 실시 방침의 유연한 변경을 실시

⑪ 보건

- 유사시 지역 실정에 맞춘 효과적인 대책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
- 도도부현은 보건소나 지방 위생 연구소 등에서 검사, 적극적 역학 조사, 입원 권고와 조치, 요양처의 조정, 이송, 건강 관찰, 생활 지원 등을 실시
- 업무 부하의 급증에 대비하여 유사시에 우선적으로 수행할 업무를 평상시에 정리, ICT 활용 등에 의한 업무 효율화와 업무 절감을 실시

⑫ 물자

- 감염증 대책 물자가 부족할 경우, 검역, 의료, 검사의 실시 등이 지체될 가능성
- 비축물자에 더해 유사시의 생산 요청을 통해 의료 기관을 비롯한 필요한 기관에 감염증 대책 물자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 형성

※ 의약품, 의료 기기, 개인 보호 장비 등

⑬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

- 감염증의 위기는 국민 생활 및 사회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
 - 평상시에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, 유사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
 - 국가는 영향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과 지원※을 실시
- ※ 생활 관련 물자의 안정 공급 요청, 만연 방지 조치 등 심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책, 생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 등

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정부 행동 계획 개정의 개요 ③

횡단적인 5가지 관점

I. 인재 육성

평상시부터 중장기적인 시야로 감염증 위기 관리 인재 육성이 중요

- 전문가 양성 코스(FETP, IDES 양성 프로그램) 등의 활용에 의한 전문성 높은 인재의 육성
- 감염증 위기 관리 인재의 저변을 넓히는 노력의 하나로 보다 폭넓은 대상(위기 관리 부문, 홍보 부문 등)에 훈련과 연수를 실시
- 지역에서의 인재의 확보와 육성 대책 리더쉽 지역 담당과 감염증 대책의 중심이 되는 보건소 직원

III. DX(디지털 전환)의 추진

DX(디지털 전환)의 추진 또는 기술 혁신에 의한 대응 능력 강화가 중요

- 국가와 지방, 행정과 의료 기관의 정보 수집, 공유, 분석 기반의 정비
- 보건소나 의료 기관 등의 업무 부담 경감에 따른 대응 능력의 강화
- 예방 접종 업무의 디지털화와 표준화에 의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, 전자 의료 기록 정보의 표준화 등의 의료 DX의 추진
- 장래적으로는 전자 의료 기록과 발생 신고의 연계, 임상 정보를 연구 개발에의 활용

V. 국제적 연계

감염증 위기는 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기 때문에,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계가 필수적

- 국제 기구나 여러 외국 정부와 연구 기관 등과 연계

- 이러한 연계를 통해
 - 평상시의 정보 수집 (신흥 감염증 등의 발생 동향 파악 또는 초기 사례를 탐지)
 - 유사시의 정보 수집 (기동적인 검역대책의 실시, 연구 개발에의 활용) 을 실시

II.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와의 연계

감염증 위기 대응에서는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

(국가: 기본 방침의 책정, 지방 공공 단체: 감염증법, 특별조치법 등에 근거한 실무)

- 감염증에 관한 데이터나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분석을 위해 평상시부터 국가과 지방 공공 단체 등의 연계 체제와 네트워크 구축
- 국가에서 지방 공공 단체로의 정보 발신을 고안해 지방 공공 단체는 주민과 사업자 등으로 적절한 정보를 제공
- 평상시부터 의견 교환 및 훈련을 실시하여 연계 체제를 부단히 강화

IV.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

위기 대응의 초기 단계부터 연구 개발 및 임상 연구 등을 추진하여 백신과 진단약, 치료약의 조기 실용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

- 유사시에 백신, 진단약, 치료약의 개발로 연결되도록, 평상시부터 의료 기관, 연구 기관, 제약 기업의 연계를 추진하고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
- 초기 단계부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역학과 임상 정보 등을 수집하여 관계 기관에서의 임상 연구와 연구 개발에 활용